새만금,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태어난다

내년 새만금 크루즈 유치
지역관광 · 경제활력 강화
테마브랜드 발굴 등
민관 협업 기반 산업 육성
자치도 · 새만금청 등
8개 기관 협약도 체결

새만금 신항만 조감도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크루즈산업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 미래먹거리의 새로운 기회이자 관광 투자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크루즈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포트세일 등 투자유치 관련 계획을 반영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연초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권역 크루즈선 기항지 확보전략, 크루즈산업 육성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 기본구상 제시를 위한 용역을 완료한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새만금개발청과 공동으로 진행될 용역에서는 오는 2026년 새만금 신항만의 크루즈 기항지 도약 및 관련산업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와 새만금청이 크루즈산업에 뛰어든 것은 크루즈선박을 비롯해 승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세계 크루즈 선사 연합(CLI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세계 크루즈 산업의 파급효과는 생산량 1억3,760만 유로, GDP 6,890만 유로, 고용 121만명, 총임금 4,280만 유로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다.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외래 크루즈 관광객 1인 소비동향 및 1회당 기항객 수를 조사한 '크루즈 실적 발표 자료'에서도 최근 5년(2016-2019, 2023) 1회당 평균 기항객수는 1,367명으로 집계됐으며, 1회 입항 당 승객이 지출하는 직접 지출액은 65만7,855달러(약 9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같은 크루즈산업은 크게 관광과 해운·항만·조선 등 4개 분야에 걸쳐 11개 업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균형발전을 통한 가치사슬체계가 형성돼 있는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항지 배후도시와의 동반성장 가능성도 크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과 인접해 있는 데다 아시아 유명 기항지들과 비교적 가까워 크루즈 노선 창출의 적지로, 대한민국의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지역관광 및 경제활력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2023년 27만명 수준이던 방한 크루즈 관광객을 2027년 100만명으로 확대하고, 크루즈를 통한 소비 규모 또한 지난해 753억원에서 2027년 2,791억원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전북자치도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도는 2026년 차질 없는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부두 개장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예정된 용역 추진도 서두를 계획이다.

동시에 크루즈 기항지 구축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체계 준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먼저 크루즈 테마브랜드 설정을 추진한다. 동해안 속초지역이 설악산과 안보를 내세우고, 서해안 서산이 종교와 명상을 주요 테마로 제시하는 것처럼, 새만금을 'K-컬처가 함께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하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다.

또 크루즈 하선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도 진행된다. 새만금 내 신시-야미 관광복합지구와 챌린지테마파크, 국립새만금수목원 등 향후 구축되는 지역자원과의 시너지 창출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기항지 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새만금 및 근교도시 숙박·관광콘텐츠 확충과 함께 관광객 소비 촉진을 위한 쇼핑시설 유치도 논의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 신공항과 새만금 철도, 광역도로망을 활용한 관광객 이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새만금 크루즈 유치를 위한 외연도 확대한다. 국제박람회 참석 등을 통한 크루즈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프린세스, 코스타, 팬스타, 롯데JTB 등 관련 선사 및 여행사와 새만금 기항지 유치를 위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향후 국내외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기항 장려금과 접안료 할인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산업 지원체계도 준비한다. 식품과 생필품 등 크루즈에 공급되는 선용품 비중을 지역 생산품으로 늘리는 방안 마련과 함께 새만금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와 플래너, 승무원 등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될 계획이다.

이밖에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로 크루즈 관광의 산업친화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원활한 터미널 운용과 관광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세관·검역·보안 등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검토하고, 해외 선진 사례와 같이 환경 친화적 터미널 운영 방식 등 도입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새만금은 향후 서해안을 대표하는 국제 크루즈 기항지로 도약해,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해 새만금을 대한민국 8대 기항지로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크루즈 중심지로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전문가가 바라본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 - 윤경준 배재대 교수

"새만금, 크루즈 기항지로 매력 높아… 관광 매력물 조성 등 뒤따라야

"중국 시장과 가깝고, 서해안권 선용품 산단 구축 가능

선용품 공급, 크루즈 경제효과 중 가장 파급력 큰 분야"

"새만금은 지리적으로 크루즈산업 발전 여건이 우수합니다"

1급 선장 출신인 윤경준 배재대 교수(사진)는 최근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교수는 새만금에 대해 "외적으로는 중국 시장과 가깝고, 내적으로는 서해안권 선용품 산업단지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새만금에 선용품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인천과 서산, 여수, 목포 등 서해안 등지의 항만에 선용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용품 공급은 크루즈 경제효과 중 가장 파급력이 큰 분야라고도 했다.

또 윤 교수는 "관광여건 등을 볼 때 새만금은 크루즈 기항지로 매력도가 높은 지역이며, 이를 기반으로한 유치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리나항만 같은 △크루즈 관광 매력물 조성 △새만금 쇼핑센터 유치 △크루즈선 인센티브 제도 시행 △전용터미널 구축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 장 소 재 철

"안전한 건설문화, 함께하는 행복동행"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28대 회장단 및 제7대 대표회원 "

회장	소재철	윤리위원	조금형	운영위원	김광현	운영위원	안장환	대표회원	강범준	대표회원	박성원	대표회원	유승욱	대표회원	장영길
직전회장	윤방섭	윤리위원	강신길	운영위원	김병학	운영위원	유성희	대표회원	김경진	대표회원	박세진	대표회원	윤영수	대표회원	전욱
감사	윤선학	윤리위원	김만열	운영위원	김성을	운영위원	윤석	대표회원	김근태	대표회원	박정순	대표회원	윤정호	대표회원	전양재
부회장	박종완	윤리위원	김양희	운영위원	김영옥	운영위원	윤일남	대표회원	김덕수	대표회원	박착희	대표회원	이다빈	대표회원	정규종
부회장	정준수	윤리위원	김영랑	운영위원	김영우	운영위원	이용호	대표회원	김미정	대표회원	서문명숙	대표회원	이도영	대표회원	정영주
부회장	김재호	윤리위원	나춘균	운영위원	김용태	운영위원	이민규	대표회원	김성	대표회원	서오성	대표회원	이봉열	대표회원	조희창
원로회원	이호석	윤리위원	라규환	운영위원	김종원	운영위원	임재훈	대표회원	김용구	대표회원	손영배	대표회원	이상훈	대표회원	지명철
원로회원	김송희	윤리위원	배문식	운영위원	김형주	운영위원	장용준	대표회원	김종원	대표회원	송수호	대표회원	이용만	대표회원	진승원
원로회원	이정기	윤리위원	양선기	운영위원	라형연	운영위원	채승석	대표회원	김준현	대표회원	신상열	대표회원	이윤범	대표회원	진용성
원로회원	곽병도	윤리위원	이성모	운영위원	박영자	운영위원	최용호	대표회원	김지혜	대표회원	신현용	대표회원	이장규	대표회원	진재석
원로회원	김승수	윤리위원	이재선	운영위원	소만호	운영위원	한상우	대표회원	김진곤	대표회원	안대순	대표회원	이정근	대표회원	최기수
원로회원	조병두	윤리위원	장기현	운영위원	신전만	운영위원	한웅진	대표회원	김창수	대표회원	오은숙	대표회원	이정택	대표회원	최종욱
원로회원	이공희	윤리위원	전주형			운영위원	황호영	대표회원	김철빈	대표회원	유득한	대표회원	이해훈	대표회원	최태림
원로회원	박형식	윤리위원	최도성					대표회원	김철상	대표회원	유명숙	대표회원	이현국	대표회원	하태풍
원로회원	국종훈							대표회원	노정철	대표회원	유봉수	대표회원	이형우	대표회원	한갑수
원로회원	최현호							대표회원	박강자					(기준:성명가나다순)	

CAK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TEL : (063)288-3881~2 FAX : (063)285-5290